

어린이주일
설교

어린 아이를 용납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13~16>

허 광 섭 목사 (오카자키교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바리새인의 불순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2~12절)과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근심하다가 돌아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17~22절)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더 확장해보면 본문은 9장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높은 자리에 대한 다툼’(9:33~37, 10:35~45)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어린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섬김과 고난에 대해 가르치시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도래를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13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어른들의 소유물이나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분의 안수에는 치유와 축복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당시 사회의 통념대로 어린이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거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특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보다 큰 일에 집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알리셨음에도 여전히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며(막10:35~45),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14절)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다’(14절)고 기록합니다. 원문에서 ‘노하셨다’는 말은 ‘격분하다’, ‘심히 분개하다’라는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던 주님의 모습(막11:15~18)을 연상하게 합니다. 비록 장사치들을 쫓아내실 때, ‘분노하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행동은 분명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한 자,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에 의존해야만 하는 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막10:23~25).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들다’(δέχομαι)는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진 특성, 즉 ‘순수함’과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 우리의 모든 자량과 자격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앞,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아온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 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2~12절) 한 사람이 ‘영생의 길’을 알고자 주님께 나아왔지만 많은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근심하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10:17~22).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영화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성전답게 관리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은 성전을 도구삼아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어린 아이들은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들을 향한 무시와 차별과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는 자의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16절)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앉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 수록 ‘경험과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계산적이며, 세속적 가치에 밝아져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동지방회

제76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지방회장에 김신야목사 선출

2025년 4월 29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총대 78명 중 62명(위임 4명)이 참석하여 제76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야나기마치이사오(柳町功) 장로의 사회로 지방회장 김용소목사가 “한 알의 밀인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2: 23~28)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 증원청원 허락: 西新井1名、品川3名、東京7名、東京中央1名
- (2) 규칙변경(각부), 선교협력부와 전도부를 합병하여 <선교전도부>로 하고, 청년부, 여성부, 장년부를 합병하여<신도부>로 하다.
- (3) 2025년도 예산 승인: 14,727,392円(그 중에7,020,000円은 총회 분담금)

(4) 임원개선

- 会 長: 金迅野牧師 (横須賀)
- 副会長: 鄭有盛牧師 (東京東部) 李永久長老 (横浜)
- 書 記: 姜章植牧師 (品川)
- 副書記: 田一光牧師 (水戸)
- 会 計: 金恵珍長老 (川崎)
- 副会計: 金恩英長老 (東京第一)
- 宣教伝道部長: 李明忠牧師 (横浜)
- 教育部長: 姜英珍牧師 (東京第一)
- 社会部長: 金伸禹牧師 (東京中央)
- 信徒部長: 具滋佑牧師 (東京希望)
- 考試部長: 金容昭牧師 (西新井)
- 財政部長: 金恵珍長老 (川崎)
- 監 査: 申大永長老 (東京希望)、柳町功長老 (横浜)



김신야 회장



중부지방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지방회장에 이진용 목사 선출

2025년 5월 5일, 나가노교회에서 총대 23명 중, 20명(위임 3명)이 참석하여 제62회 중부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이대중장로의 사회로 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요한복음 13: 1-5)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 증원청원 허락: 나고야(名古屋) 3명
- (2) 2025년도 예산안 승인: 17,185,668엔(총회분담금 3,997,000엔 포함)
- (3) 임원개선

- 会 長: 李珍容牧師 (豊田めぐみ)
- 副会長: 許光涉牧師 (岡崎) 崔宰熏長老 (名古屋)
- 書 記: 蔡銀淑牧師 (大垣)
- 副書記: 金成彦牧師 (豊橋)
- 会 計: 高在道長老 (名古屋)
- 副会計: 金珍明長老 (長野)
- 伝道部長: 金明均牧師 (名古屋)
- 教育部長: 金成彦牧師 (豊橋)
- 社会部長: 李大宗長老 (名古屋)
- 青年部長: 金炯振牧師 (千曲ビジョン)
- 財政部長: 高在道長老 (名古屋)
- 女性部長: 金恩淑執事 (豊橋)
- 考試部長: 李珍容牧師 (豊田めぐみ)
- 韓・日宣教協力委員会長: 蔡銀淑牧師 (大垣)
- 電磁メディア委員会長: 崔和植牧師 (長野)
- 監 査: 呂和淑勸士 (名古屋)、曹述燮勸士 (名古屋)



이진용 회장



관서지방회

제76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지방회장에 김종권목사 선출

2025년 5월 6일, 히라노교회에서 총대 69명 중 58명이 참석하여 제76회 관서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모리카즈유키(森克之) 장로의 사회로 김무사목사가 “교회 교제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4: 7 ~ 11)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내빈으로는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산 동노회에서 신관우장로(노회장)를 비롯하여 3명의 임원과, 제주노회에서 김태영장로(노회장)를 비롯하여 4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 증원 청원 허락: 교토3명, 교토남부 2명, 오사카북부 2명, 오사카2명, 후세1명.

(2) 난코전도소 김대현목사가 사카이교회에 청빙을 받음으로 인해, 난코전도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사카이교회와의 합병이 승인되었다. 난코전도소는 5월말까지 활동하고, 6월 이후 성도는 사카이교회에 출석할 예정.



- (3) 관서지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와의 선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승인 되었다.

- (4) 청년부의 제안으로 청년육성을 위하여, 관서지방회와 서부지방회와의 교류실시와 정기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 (5) 2025년도 예산안 승인: 6,112,000엔(그 중 총회지원금 1,700,000엔)

(6) 임원개선

- 会 長: 金鍾權牧師 (平野)
- 副会長: 宋南鉉牧師 (大阪第一) 吉井秀夫長老 (京都)
- 書 記: 裴貞愛牧師 (枚岡)
- 副書記: 新井由貴牧師 (京都南部)
- 会 計: 金光成長老 (大阪)
- 副会計: 高慶美長老 (大阪)
- 伝道部長: 朴栄子牧師 (豊中第一復興)
- 教育部長: 金大賢牧師 (南港伝道所)
- 社会部長: 申容燮牧師 (KCC)
- 青年部長: 梁陽日長老 (大阪)
- 女性部長: 金仁姬勸士 (京都)
- 考試部長: 趙永哲牧師 (大阪北部)
- 視察部長: 金鍾權牧師 (平野)
- 壮年部長: 森克之長老 (大阪)
- 宣教協力部長: 宋南鉉牧師 (大阪第一)
- 納骨堂委員会部長: 朴成均牧師 (和歌山第一)
- 会計監査: 森克之長老 (大阪)、嚴敏俊長老 (京都)



김종권 회장

서부지방회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지방회장에 한세일 목사 선출

4월 29일(화) 서부 지방회의 제41회 정기 총회가, 카와니시교회 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에는 회장 한승철 목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 4장 1절~7절)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으며, 이종재 목사의 집례하에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총대원 32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와 임원 개선 및 현의안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개선

- 会長：韓世一 牧師 (神戸)
- 副会長：中江洋一牧師 (広島)
白承豪長老 (神戸)
- 書記：尹鐘憲牧師 (明石)
- 副書記：孫信一牧師 (西宮)
- 會計：崔美恵子長老 (武庫川)
- 副會計：尹聖哲長老 (神戸)
- 監事：李重載牧師 (川西)
金哲鎬長老 (神戸東部)
- 伝道部：韓承哲牧師 (神戸東部)
- 教育部：尹鐘憲牧師 (姫路薬水)
- 社会部：李相徳牧師 (福山)
- 信徒部：李重載牧師 (川西)
- 考試部：崔亨喆牧師 (岡山)
- 視察部：中江洋一牧師 (広島)
- 宣教協力部：韓世一牧師 (神戸)



한세일 회장

(2) 제40차 서부지방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3) 임시당 회장 선임 승인

(4) 무코가와 교회 장로 1명 증원 청원 승인

(5) 고베교회 장로 1명 증원 청원 승인

(6) 개척전도비 수급교회에 대한 임원회 회계감독 승인

(7) 2024년도 예산 정정의 승인

(8) 예산안 승인 : 9,402,282엔



大阪教会

이명신 목사 위임식 거행
제9대 담임목사로서 부임

2025년 4월 27일 주일 오후 大阪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이명신목사의 위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무사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장 양영우목사가 <낙담하지 않는 목회자> (고후4 : 16~18)라는 설교를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서지방회장 박영자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 서약, 기도,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영철목사와 전성삼목사의 권면에 이어 축사는 김종권목사, 尾島信之목사(교단 南大阪교회), 배정애목사가 하였다.

이번에 관서지방회로부터 大阪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이명신목사는 196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감리교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는 立教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독교대한감리회(KMCC)과송 선교사로 일본에 와서 관동지방회 山形우리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가족으로는 김희숙부인과 1남1녀가 있다.

서남지방회

제75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지방회장에 윤선박 목사 선출

2025년 4월 29일(화·축) 11시부터 福岡教会에서 총대 23명 중 20명이 참가하여, 제75회 서남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신치선 목사가 「枯れた骨をも生き返らせる主」 (에스겔 37 : 1-10)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다.

폐회예배는 신지방회장 윤선박 목사가 에베소서 3 : 18-21로 말씀을 전했다. 16시 30분에 폐회했다.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개선

- 会長：尹善博牧師 (博多教会)
- 副会長：趙顯奎牧師 (別府教会)、
高文局長老 (別府教会)
- 書記：林明基牧師 (福岡教会)
- 會計：崔日承長老 (博多教会)
- 伝道部長：辛治善牧師 (福岡中央教会)
- 教育部長：郭鏞吉牧師 (沖繩教会)
- 社会部長：金承熙牧師 (下関教会)
- 青年部長：趙顯奎牧師 (別府教会)
- 女性部長：曹恩注牧師 (宇部教会)
- 宣教協力部長：李惠蘭牧師 (折尾教会)
- 視察部長：朴栄喆牧師 (対馬めぐみ伝道所)
- 考試部長：林明基牧師 (福岡教会)
- 歴史編纂委員会長：金聖孝牧師 (熊本教会)
- 財政部長：崔日承長老 (博多教会)
- 監査：高文局長老 (別府教会)、郭鏞吉牧師 (沖繩教会)

2. 지방회규칙개정안 (4장5조9항에 6을 추가: 牧師が委任を受ける前に着任・居住および牧会奉仕することは、地方会の承認をえなければならない)을 승인했다.

3. 장로증원청원허락

(折尾教会 1명, 福岡教会 2명)을 승인했다.

4. 「第75回西南地方会 予算案(13,171,263円)」을 승인했다.



윤선박 회장



東京希望 그리스도教会

두 장로 장립식을 거행
집사안수 권사임직식도 동시에

방철희 장로



차병우 장로

2025년 4월 27일(주일) 오후에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방철희, 차병우 장로장립식 및 정재옥, 강경운, 김경태, 박지만 집사안수식, 오옥균, 강정란, 박선영, 허윤아 권사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구자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는 관동지방회 부회장 야나기마치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였고, 동경동부교회 정유성목사가 <나는 행복한 주의 중> (이사야 61 : 1 ~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안수기도, 선포로 이어졌으며, 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은 당회장 구자우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이어서 부총회장 장경태목사가 권면과 축사를 한 후에 요코하마교회 이명충목사가 축도로 마쳤다.

금번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시무 장로로 장립을 받은 방철희 장로는 195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7년부터 서리집사 및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겨왔으며, 차병우장로는 195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4년부터 서리집사 및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겨왔다.

서거소식

제68회 정기대회 개최
새 회장에 임영숙집사(오리오) 선출

2025년 4월 26일(토) 고쿠라교회에서 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제68회 정기대회를 개최되어 개회예배(설교 : 이해란 목사)를 드리고, 박현숙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각 교회 각부의 보고, 결산 예산의 승인이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원 개선이 있었고, 신회장으로서는 오리오교회의 임영숙집사가 선임되었다. 새로운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임영숙(오리오), · 부회장 양정자(고쿠라)
· 서기 카쿠조가오리(시모노세키), · 회계 조용현(후쿠오카)
모든 순서가 끝나고 폐회예배(설교 : 조은주 목사)를 드려 대회를 종료했다.

今福教会

이병림 명예장로가 소천
1978년에 故이병구 목사와 함께 개척

2025년 4월 21일, 이병림 명예장로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박애선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향년 94세였다.

故·이병림 명예장로는 193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7세에 결혼하고 몇 년 후 일본으로 건너왔다. 소책자 <잊을수 없는 나그네 39년의 발자취>에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온 故人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마후쿠교회는 故·이병림 명예장로와 故·이병구 명예목사가 1978년 개척한 교회로서, 1986년 장로로 장립된 후 전 생애를 이마후쿠교회를 위해 바쳤다. 누나와 동생이 장로와 목사로서 기여한 두 분의 공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장례식에서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大阪北部교회100주년 특집>

초대 담임목사 김태련(복)목사의 가족을 찾아서

오사카 북부교회 목사 조영철



오사카북부교회 초대 김태련(복) 목사



김태련목사 자녀들과 함께

사가 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결혼식의 단체사진으로부터 김태련 목사의 모습만을 빼내어 90주년의 기념집에 게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초대 담임목사의 사진은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분이 어떤 분이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후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후, 2018년 10월 말경에 일본기독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의 연락을 받고, 초대목사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초대목사의 차남(김기환목사)과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분이 초대목사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중에 일본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는 90주년 기념집에 게재된 사진과 몇 가지 자료를 보내 드렸다. 처음에는 김태련 목사와 가족들이 말씀하는 김태복 목사가 다른 인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옛 교적부를 찾아본 결과 같은 교적부에 김태련이라는 이름과 김태복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김기환 목사께 보내어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임이 판명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초대 담임목사의 정보를 더 조사해 보기 위해 2019년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일대한기독교교회 교역자 연수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미국 샌디에고를 향해 차남 김기환목사 부부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차녀 노화득권사를 만나게 되었다. 가족들을 통해서 초대 담임목사가 귀국 후, 평양신학교 교수로 봉사했고, 6.25전쟁 발발 바로 전에 북한 공산당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그 후에 순교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현재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등록됨).

그리고 금년도 2월에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제 15차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에 참석한 후에 다시 초대담임목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본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선교헌금을 해 주신 노화득권사께 감사패를 전해 드렸다. 또한 차남 김기환목사 께는 금년도 9월 28일에 개최되는 교회 100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여 승락을 받았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80주년과 90주년에는 2대부터 4대까지 담임목사 가족들을 초청한 적은 있지만 초대 담임목사의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년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초대 담임목사의 가족들을 만나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초대 담임목사 가족과 함께 본 교회의 선교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감사의 100년과 동시에 새로운 100년의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전진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51년 당시의 교회당(왼쪽)과 현재 교회당(오른쪽)

